

NEWSLETTER 847

Jun 27, 2023

한-베 자유무역협정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 마약단속 공조 등 -

윤태식 관세청장과 응우옌 반 토(Nguyen Van Tho) 베트남 관세총국(GDVC,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부총국장은 베트남 하노이 관세총국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6월 23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 한-베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양자회의는 윤태식 관세청장 취임('22.5월) 이후 한-베트남 관세당국 간 첫 고위급 공식 만남입니다.
- 이번 회의는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확산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①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는 한편, ② 마약 단속 협력 강화, ③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협력, ④ 통관애로 해소 협력채널 신설 등을 논의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관세당국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II. 주요 논의사항

1.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

- 양 관세당국은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금년 7월 15일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베트남에서 한-베/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이 원산지증명서(C/O)의 국가 간 이동·제출 절차 〉



※ ③~⑤ 단계에서 배송 시간·비용 소요, 도난·분실·훼손 등 위험이 있고, 외국세관의 원본여부 확인 과정에서 통관지체 우려가 있으나, **원산지증명서 전자적 교환시 ③~⑤ 단계가 생략됨**

-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 자유무역협정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약 4일 → 실시간), ② 물류비용 절감, ③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마약 단속 공조

- 양 관세당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등 국경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우범정보 교환, 합동단속 등 분야에서 양국간 불법/위해 물품 거래 차단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협력

-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는 상호 합의. 약정 체결시 우리 수출기업(AEO)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양 관세당국은 동 약정 체결을 위해 필요한 ‘한-베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빠른 시일 내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 중 동 약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 개정의정서는 '22.12. 한-베트남 정상회담시 체결되었으며, 현재 발효를 위한 베트남측 국내절차가 진행중 (한국측은 22.12. 국내절차 완료)

4. 통관애로 협력채널 신설

- 양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한-베트남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담당부서 : (한)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 (베) 관세총국 국제협력국(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7.15.부터 한-베 자유무역협정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Contact



차재영 관세사

T 02-6929-3464
E jycha@esein.co.kr



이수지 관세사

T 02-6011-3065
E szlee@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